

## 국산 장석으로부터의 Analcime합성

김 면 설

한양대학교 화공과

(1976년 11월 18일)

## Synthesis of Analcime by Treating of Domestic Feldspar

Kim, Mynn Sup

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, Hanyang University

(Received Nov. 18. 1977)

### ABSTRACT

Domestic Anyang feldspar was treated in autoclave with 1N sodium hydroxide solution for 1~6 hrs at 100~200°C. By X-ray diffraction patterns and cation exchange capacity, the products were examined.

The following consecutive reaction was valid.



The reaction rate constants,  $k_1$  and  $k_2$ , were 0.20 and 0.15 (1/hr) at 200°C respectively. The activation energy from albite to amorphous aluminosilicate was 10 kcal/mol, and from amorphous aluminosilicate to analcine 13 kcal/mol.

The analcime obtained was excellent in cation exchange capacity, amounting to 210meq./100g.

### 서 론

자연계에서 산출되는 Zeolite는 토지개량제<sup>1)</sup>, 동물의 사료배합제, 비료배합제<sup>2)</sup>, 농약배합제, 충진제<sup>3)</sup>, 흡착제<sup>4)</sup>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.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Zeolite광이 혼하지 않고<sup>5)</sup> 그 절도 외국의 것에 비하여 멀어진다.

자연계에서 산출되는 광물로부터 Zeolite를 합성하려는 노력은 많이 있었다. 예를 들면 Kaolin으로부터 Sodium A Zeolite의 합성<sup>6)</sup>, Bentonite로부터 Mordenite의 합성<sup>7)</sup> 등을 들 수 있다. 그러나 보다 값싸고 풍부한 혼히 있는 광물로부터 우수한 Zeolite를 값싸게 합성할 수 있다면 토지개량제나 충진제로 많이 이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.

마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많이

산출되는 장석을 원료로 하여 토지개량제나 충진제로 우수한 Zeolite의 일종인 Analcime을 합성하는 반응을 반응속도론적으로 취급하여 그 반응기구를 추정한 연구의 결과를 보고한다

### 실험

시료: 우리나라 안양산의 장석을 분쇄하여 200mesh. 통과분을 110°C에서 1시간 건조하여 수비 경제 후 다시 110°C에서 1시간 건조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. 이의 화학적 조성은  $\text{SiO}_2$  69.1%,  $\text{Al}_2\text{O}_3$  19.3%,  $\text{Fe}_2\text{O}_3$  0.3%,  $\text{Na}_2\text{O}$  9.8%,  $\text{K}_2\text{O}$  1.1%,  $\text{CaO}$  0.3%이고 X선 회절도는 Fig. 7에 실었다. 이 시료는 주로 Albite로 되어 있음을 알았다.

시료의 처리: 장석시료 5g와 1N 수산화나트륨수용액 200ml를 가압솥에 넣고 100~200°C에서 1~60시간 처리한 후 처리물을 여과하고 수세하였다. 수세는 예

액의 pH가 10이 될 때까지 행하였다. 자사는 황산암모늄포화수용액이 든 Desiccator 중에 1주야 이상 방치한 후 분쇄하여 다른 실형에 사용하였다.

X선회절도 : X선회절도는 島津 VD-1(日製) X선회절기를 사용하여 분말법으로 CuK $\alpha$ , 35kV, 15mA, GM 1.3KV, Full scale count 1000c/s, Time Const. 2 sec, Fe Filter, Scanning Speed 2°/min, Chart Sped 1cm/min, Slit 1°-1°-0.3mm로 일었다. Analcime은  $d=$  3.43, 5.61, 2.93Å, 정석은 3.20, 3.78, 6.39Å의 각 3개의 Peak의 평균으로 경량선을 만들어 경량하였다. 대부분 줄물질로는  $\alpha$ -Al<sub>2</sub>O<sub>3</sub>를 사용하였다.

NH<sub>4</sub><sup>+</sup> 이온교환능 : 시료 0.1g에 0.2N 염화암모늄수용액을 10ml 가하고 25°C에서 1시간 Shaking후 원심 분리하여 액의 일정량을 취하여 Nessler 시약에 의하여 NH<sub>4</sub><sup>+</sup> 이온농도를 비색정량하여 NH<sub>4</sub><sup>+</sup> 이온농도의 경량으로 부터 구하였다.

기타 실험들은 전보<sup>8)</sup>에 준하였다.

### 결과 및 고찰

예비실험의 결과 1N 수산화나트륨수용액 과량으로 우리나라 안양장석을 처리하는 것이 Analcime 합성에 가장 적합함을 알았으므로 이 보문에는 1N 수산화나트륨수용액 과량으로 처리한 결과만 썼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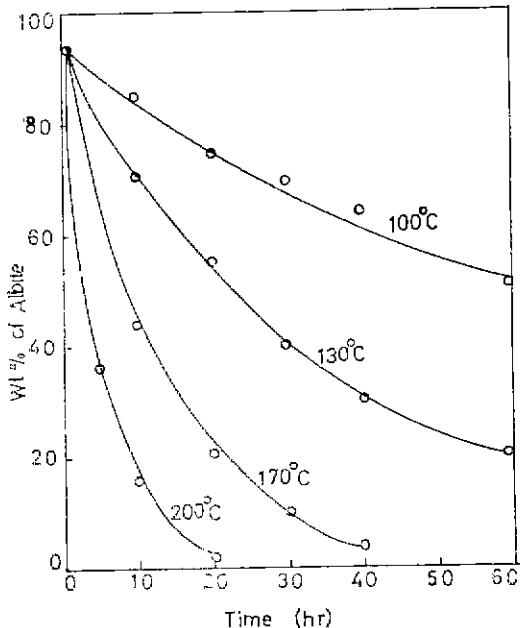


Fig. 1 Effect of reaction time on weight fraction of Albite

Albite 결정의 감소를 시간에 따라 그린 그림이 Fig. 1이다.

100°C 처리에서는 Albite의 감소속도는 느리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감소 속도는 급격히 증가하여 200°C에서는 상당히 빠르다.

Albite은 일단 무정형 Aluminosilicate로 됨은 X선회절도에 의해서 알 수 있었다. Albite 이 무정형 Aluminosilicate로 되는 반응을 일차반응이라고 가정하면

$$-\frac{dF}{dt} = k_1 F$$

$$\therefore \ln F_0/F = k_1 t$$

여기에서 F는 Albite의 무게 %이고 F<sub>0</sub>는 Albite의 초기무게 %, k<sub>1</sub>은 반응속도상수이다. 시간에 따르는 lnF<sub>0</sub>/F의 Plot이 Fig. 4이다. lnF<sub>0</sub>/F 대 시간이 거의 직선인 것으로 보아 Albite로부터 두정형 Aluminosilicate로 되는 반응은 일차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. Fig. 4의 각 직선의 기울기로 부터 구한 k<sub>1</sub> 값은 100°C에서 0.01, 130°C에서 0.027, 170°C에서 0.074, 200°C에서 0.2(1/hr)이었다. 이들의 Arrhenius Plot이 Fig. 5이다. Fig. 5의 직선의 기울기로 부터 구한 Activation Energy는 10kcal/mol 였다.

Albite은 본 실험의 조건하에서 처리하면 무정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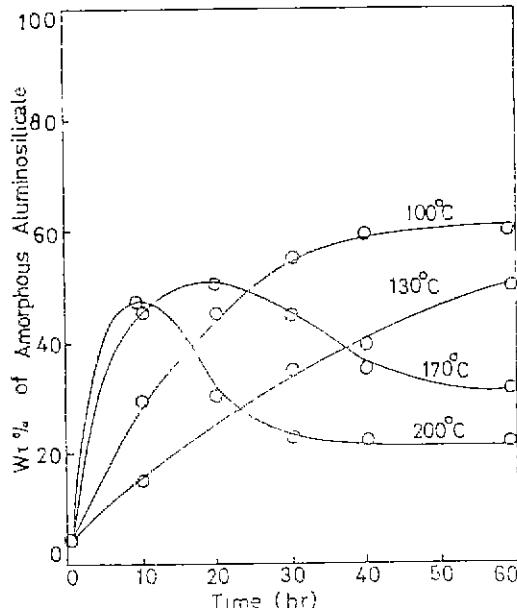


Fig. 2 Effect of reaction time on weight fraction of amorphous aluminosilica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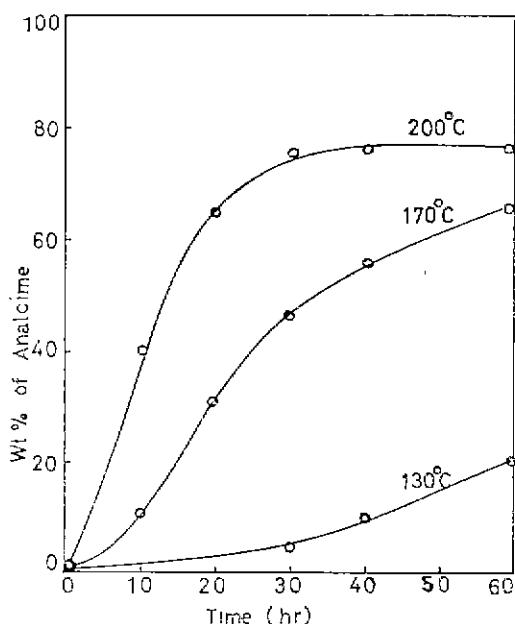


Fig. 3 Effect of reaction time on weight fraction of analcime

Aluminosilicate와 Zeolite의 일종인 Analcime이 생겼고 이 이외의 다른 질정은 볼 수 없었다. Fig. 3은 Analcime의 생성을 시간에 따라 표시하였다. 100°C에서는 거의 Analcime의 생성은 볼 수 없었으나 처리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Analcime의 생성이 험쳐하여 거의 200°C 처리로 30시간 이상이면 75% 정도의 Analcime가 생성됨을 알았다. 무정형 Aluminosilicate로 부터 Zeolite 형성반응은 일반적으로 1차반응으로 취급할 수 있으므로<sup>9</sup> Albite로부터 Analcime으로 되는 반응을 다음과 같은 추차반응으로 가정하였다.



여기에서  $k_2$ 는 무정형 Aluminosilicate가 Analcime으로 되는 1차반응속도상수이고 A는 무정형 Aluminosilicate의 무게 %이고 Z는 Analcime의 무게 %이다. 따라서

$$-\frac{dA}{dt} = -k_1 F + k_2 A$$

$$-\frac{dZ}{dt} = k_2 A$$

$$\therefore A = \frac{k_1 F_0}{k_1 - k_2} (e^{-k_1 t} - e^{-k_2 t}) + A_0 - k_2 t$$

$$Z = 100 - F_0 e^{-k_1 t} - \frac{k_1 F_0}{k_1 - k_2} (e^{-k_1 t} - e^{-k_2 t}) + A_0 e^{-k_2 t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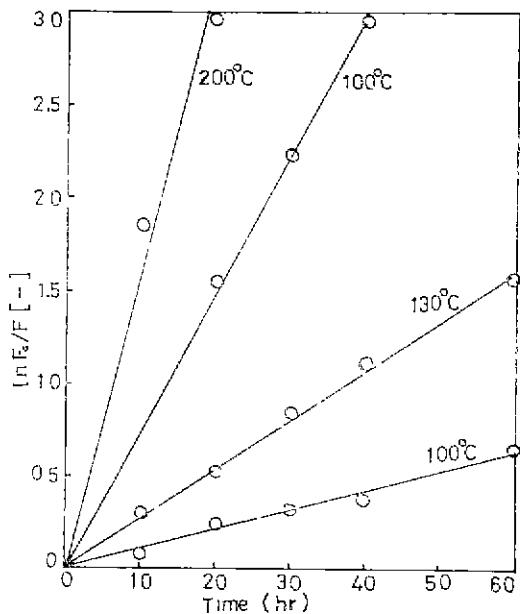


Fig. 4  $\ln(F_0/F)$  vs. ti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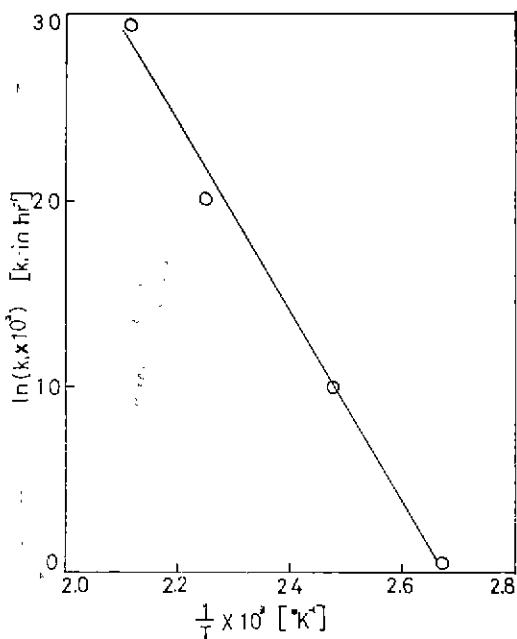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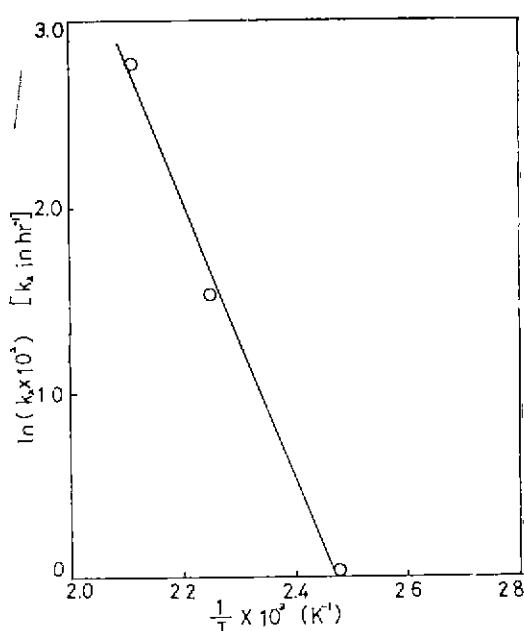
여기에서  $A_0$ 는 초기의 Aluminosilicate의 무게 %이며 초기의 Analcime의 농도는 0이라 하였다.

무정형 Aluminosilicate의 실험값은 Albite와 Analcime의 양으로부터 계산하였다. 이의 값들의 그림이 Fig. 2이다. Fig. 2에서 100°C와 200°C에서는 현저하지 않으나 170°C와 200°C에서는 무정형 Aluminosilicate의 양이 처리 시간에 따라 최고로 되는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. 시간에 따른 Albite의 감소 경향과 Analcime의 증가 경향과 이 사실을 종합하여 위의 추차 반응과정이 어느정도 타당하리라 생각된다. 무정형 Aluminosilicate의 양이 최대가 되는 때의 시간을  $t_{\max}$ 라하면

$$t_{\max} = \frac{1}{k_2 - k_1} \ln \left( \frac{k_2}{k_1} + \frac{A_0}{K_0} \right) \left( \frac{k_2}{k_1} - \left( \frac{k_2}{k_1} \right) \left( \frac{A_0}{K_0} \right) \right)$$

로 되므로 이식과  $k_1$ 의 값으로부터  $k_2$ 의 근사값을 구하고 Analcime의 실험값으로부터  $k_2$ 의 값을 구한 결과 130°C에서는 0.010, 170°C에서는 0.045, 200°C에서는 0.15(1/hr)임을 알았다. 이렇게 구한  $k_2$  값을 부터 이론적으로 계산 무정형 Aluminosilicate의 양 및 Analcime의 양은 실험값과 거의 일치함을 알았다.

이상의 사실로 보아 위의 추차반응의 가정이 맞는 것이라 생각된다. 구한  $k_2$ 의 값을 부터 Arrhenius plot를 한 결과가 Fig. 6이다. 이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무정형 Aluminosilicate로 부터 Analcime이 생성되는 Activation Energy가 13kcal/mol임을 알았다. 이

Fig. 5 Arrhenius plot for  $k_1$ Fig. 6 Arrhenius plot for  $k_2$ 

값은 Kerr<sup>10)</sup>의 무정형 Aluminosilicate로 부터 Sodium A Zeolite 생성시의 Activation Energy가 12~19kcal/mol라고 발표한 값과 거의 상통하는 점이 있었다.

이와 같이 합성된 Analcime은 양이온 교환능이 210 meq/100g로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Analcime와 거의 같은 정도이며 기공율도 82%로 우수하였으므로 토지개량제, 비료배합제, 농약배합제, 충진제등에 이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.

## 결 론

우리나라 안양산의 장석을 과량의 1N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100~200°C에서 1~60시간 처리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.

1. 본 실험조건으로는 Analcime와의 다른 결정은 생기지 않았다.
2. Albite  $\xrightarrow{k_1}$  Aluminosilicate  $\xrightarrow{k_2}$  Analcime의 추차 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되며 k<sub>1</sub>, k<sub>2</sub>의 값은 200°C에서 각각 0.20, 0.15(1/hr)임을 알았다.
3. Albite 무정형 Aluminosilicate로 되는 Activation Energy는 10kcal/mol, 무정형 Aluminosilicate로 Analcime로 되는 경우는 13kcal/mol임을 알았다.
4. 합성된 Analcime의 양이온 교환능이 210meq/1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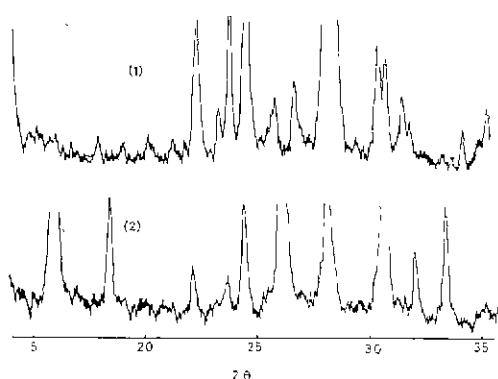


Fig. 7 X-ray diffraction patterns of albite(1) and analcime(2)

이고 기공율이 82%로 우수한 Zeolite임을 알았다.

## 인 용 문 현

- 1) 大森啓一, 岩石礦物礦床學雜誌(日本) 45, 121 (1961).
- 2) Wiley, C. R. nad Gordon, N. E., Soil. Sci., 15, 371(1923).

- 3) Schurecht, H. G. and Donda, W. H., *J. Amer. Ceram. Soc.*, **6**, 940(1923).
- 4) Sameshima, J. and Hemui, H., *Bull. Chem. Soc. Japan*, **9**, 27(1934).
- 5) 木野崎吉郎, 朝鑄會誌, **22**, 531(1938).
- 6) 高橋浩, 西村陽一, 日本化學雜誌, **89**, 373(1968).
- 7) 김면섭, 김영철, 염태수, 이평석, 烷業會誌, **10**, 51(1973).
- 8) 권이열, 김면섭, 대한화학회지, **16**, 249(1972).
- 9) 白崎高保, 小林正弘, 岡崎洪, 森川清, 工業化學雜誌(日本), **72**, 1041(1968).
- 10) Kerr, G. J., *J. Phys. Chem.*, **70**, 1047(1966).